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춘계답사 실시

: 연구원은 2015년 춘계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답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제시대 수탈현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전주대 역사문화컨텐츠학과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감추기 어려우시다면 연구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날짜 : 03. 21(토) 09:00 ~ 20:00 / 장소 : 나주 영산포 거리, 광주광역시

○ 39회 문화강좌 안내

: 2015년 첫 문화강좌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열립니다. 다음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강좌도 듣고 새로운 보금자리도 구경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 날짜 : 03. 28(토) 16:00 ~ 18:00 /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강사 : 문윤걸 교수(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 금주 연구원 주간일정

[2015년]

○ 03월 16일 : 주간회의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17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18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19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20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21일 : 연구원 춘계답사

■ 역사속의 오늘

○ 돈 주고 물을 사먹는다? 생수시판 허용 - 1994. 03. 16

: 예전에는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물을 돈 주고 사먹는다는 것을... 1994년 3월 16일 보건사회보(현 보건복지부)가 생수의 국내시판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단, 대중광고 금지와 직접적 이름 사용금지, 광천음료수 명기라는 조건이 붙은 채로 말이다. 당연하게 생각한 존재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비단 물 뿐일까?

○ 요정정치와 정인숙, 그리고 권력의 입막음 - 1970. 03. 17

: '한옥 깊은 곳 아늑한 방에 아리따운 한복여인을 끼고 앉아 판소리에 우선 흥을 돋우었다.' 이는 60~70년대 우리 정치판을 비유하는 말이었다. 이른바 요정정치라고 불리는 음침하고 도색적인 밀실 문화! 1970년 3월 17일 당시 고급요정인 선운각의 마담 정인숙이 피살당하였다. 정인숙에게는 세 살배기 아들과 정·재계의 거물급 인사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있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정인숙은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건 아닐런지...

○ 반미의 무풍지대를 불태우다 - 1982. 03. 18

: 1980년 광주의 비극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반미의 무풍지대였다. 하지만 광주의 비극에 미국의 적극적 방조와 지지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문부식, 김은숙, 김화석, 박정미가 미국의 신군부 집권을 지원·인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부산 미문화원에 방화하였다. 반미의 서막이 펼쳐진 것이고, 더 이상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 이념대립이 탄생시킨 비전향장기수 - 1993. 03. 19

: 이인모 비전향장기수가 1993년 3월 19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민족분단의 비극적 결과물 중 하나가 비전향장기수이다.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비전향장기수라는 용어가 구시대의 유물이 되기를...

○ 어린이 - 1923. 03. 20

: 1923년 3월 20일 어린이를 위한 월간잡지 '어린이'가 창간되었다. 어린이라는 용어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만든 용어로 처음에는 늙은이, 젊은이 등과 대등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폭행관련 뉴스 기사를 보고 있으면, 방정환 선생이 지향했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은 아직도 요원할 뿐이다. 그리고 저연령층에서 교육 강요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날 노래에 걸맞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세상을 바라본다.

○ 방북하는 소 - 2001. 03. 21

: 대한민국 건설업계하면 떠오르는 기업은 심중팔구 현대건설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너무도 잘 알려진 이름 정주영! 특히 소떼몰이 방북으로 이름자를 남겼다. 한편 5공 청문회에서 당시 노무현 의원으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기도 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그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평등한 인간이었다.

○ 식민침탈도구 철도 - 1897. 03. 22

: 1897년 3월 22일 우리나라 최초 철도인 경인선의 기공식이 있었다. 자금문제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899년 9월 18일 완공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자력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는 식민침탈의 도구로써 역사의 어두운 면을 함께 간직하고 있었다. 지금은 KTX라는 고속열차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경인선 역사는 미묘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